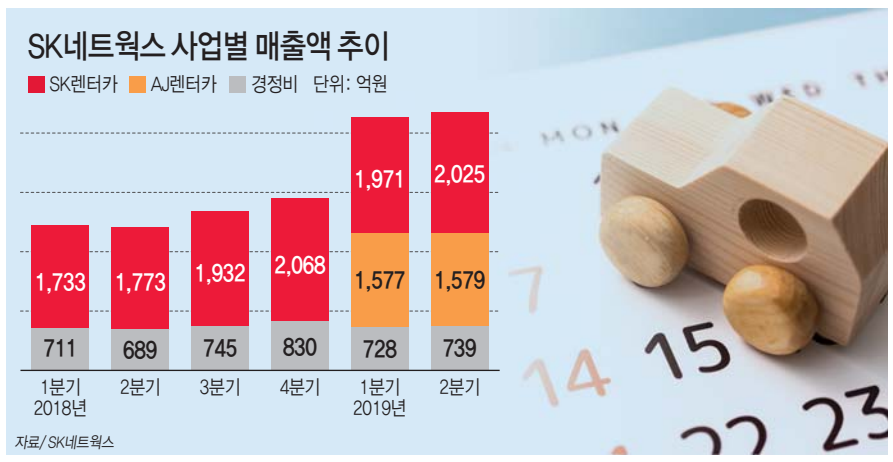
‘렌탈·카라이프 땡큐~’… SK네트웍스, 실적 행복시대

SK네트웍스

2분기 영업익 521억, 144.3% 급증
카라이프 76.3%, SK매직 11.3% ↑

AJ렌터카 인수 후 시너지효과 톡톡
주요 가전렌탈, 업계서 압도적 1위



SK네트웍스가 날개짓을 본격화했다. 미래 주력 사업인 카라이프와 SK매직이 본궤도를 찾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K네트웍스는 2분기 매출액 3조 3633억원, 영업이익 521억원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2.0%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144.3%나 수직 상승했다. 당기순이익도 58억원으로 다시 흑자 전환했다.

사업별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견조했다. 상사(1조847억원)가 전년보다 25.3%나 줄었지만, 정보통신(1조2880억원)이 11.8% 상승하며 빈자리 일부를 채웠다. 워커힐도 679억원으로 8.9%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카라이프(4342억원)와 SK매직(1798억원)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전년 대비 각각 76.3%, 11.3%나 성장했다.

카라이프는 영업이익도 263.7%나 수직 상승하며 323억원을 벌어들였다. SK매직도 전년비 58.3% 좋은 성적으로 110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실적 상승 신호탄을 쐈다.

◆궤도 오른 카라이프

카라이프는 SK네트웍스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모빌리티 사업 부문이다. SK렌터카와 스피드메이트, 그리고 지난해 인수한 AJ렌터카가 있다.

SK네트웍스는 올해 카라이프 영업이익이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396억원)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가파른 렌터카 시장 성장이 이유로 들어졌다. 신차 대비 렌터카 비중이 2015년 8.9%에서 지난해 15%까지 올랐다는 설명이다.

SK네트웍스는 지난 4월 기준으로 SK렌터카가 13%, AJ렌터카가 9.4%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1위 업체인 롯데렌터카(24%)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SK렌터카와 AJ렌터카간 시너지 효과도 뚜렷해졌다. 각각 장기와 단기 렌터카 시장을 책임지면서, 상호보완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SK그룹 철학인 ‘수직 계열화’도 장점이다. 스피드메이트가 유지·관리를 맡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 ‘타이어픽’을 열고 타이어 유통 사업으로도 손을 뻗었다.

SK네트웍스는 추후 사업 규모 확대로 원가를 절감하고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화 등 시너지를 노린다. SK그룹이 추진 중인 카셰어링과 EV 모스트 등 모빌리티 사업과도 연계를 기대했다.

◆렌탈시장도 SK손에?

SK네트웍스는 렌탈 가전 사업 높은 가능성을 내다보고 2016년 SK매직을 인수했다. 당시 매출액이 4372억원이었던 회사는 올해 78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도 392억원에서 올해 7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렌탈계정도 누적 180만계정으로 2016년(97만)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계정도 38만에서 62만으로 급증했다.

주요 가전 시장 점유율도 높다. 식기세척기가 2분기 71%로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가스레인지(38%)와 전기오븐(37%), 전자레인지(35%), 전기레인지(19%) 등에서 1위를 이어갔다.

SK매직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함과 동시에, 전문판매인력을 강화하고 통신사 제휴와 결합 상품 출시 등 그룹 시너지 효과도 노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SK네트웍스는 코웨이 인수전에 참가 의사를 밝히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업계 압도적인 1위 코웨이를 흡수해 렌탈 사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만약 합병히 성공하면 SK네트웍스는 렌탈계정만 900만여개를 보유하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네트웍스가 코웨이 인수에 성공하면 렌탈 시장 1, 2위를 합쳐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셈”이라며 “다소 비싼 가격이 문제지만, 인수 의지는 여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탄수화물 최대 39% ↓… 당질저감 밥솥 예판

위니아딤채 20% 할인 특가

위니아딤채가 세계 최초 당질저감 IH 압력밥솥을 미리 구매하려는 고객에 큰폭의 혜택을 제공한다.

위니아딤채는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딤채쿡 당질저감 30’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니아e샵’과 당뇨 전문 쇼핑몰 ‘닥다몰’을 통해서다.

출하가는 89만9000원이지만, 예약판매 기간 동안은 20% 할인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당질저감 밥솥은 일반 밥솥 백미밥보다 탄수화물을 최대 39%까지 낮춰주는 제품이다. 당질저감 IH 압력 밥솥은 위니아딤채가 세계에서 처음 개발했다.

위니아딤채 관계자는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당뇨 진단을 받은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서고, 15세 이상 국민의 30% 이상이 비만으로 조사됐다”며 “건강관리에 당 조절이 필수가 된 만큼 ‘딤채쿡 당질저감 30’ IH 압력밥솥으로 식단을 관리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50개월 무이자할부 최대 423만원 할인

한국지엠 쉐보레 ‘쉐비 페스타’

한국지엠 쉐보레가 8월 ‘쉐비 페스타’ 프로모션을 통해 이달 국내 고객들에게 올해 최대의 구입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쉐보레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폭은 423만원에 달한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쉐비 페스타 대상 차종은 쉐보레 스파크, 트랙스, 이쿼녹스, 임팔라 총 5000대다.

선수금과 이자가 전혀 없는 ‘더블 제로’ 무이자 할부는 지난달까지 36개월이던 할부 가능 개월 수를 최대 50개월로 확대해 운영하며 12, 24, 36, 48 개월 중 선택이 가능한 ‘더블 제로 무이자 콤보’ 할부는 할부 개월 수에 따라 스파크 최대 90만원, 트랙스 최대 130만원, 이쿼녹스 최대 220만원, 임팔라 최대 2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72개월 ‘슈퍼 초장기 할부’ 프로그램은 이율을 1.0%까지 낮췄으며 고객이 현금 지원과 할부가 결합된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선택할 시 차량 가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지원 폭은 스파크, 트랙스 9%, 이쿼녹스, 임팔라 10%다.

스파크는 월 10만원으로 최대 10년까지 할부가 가능한 ‘10-10 슈퍼 초장기’ 할부를 8월까지 유지한다. 말리부는 콤보 할부를 통해 100만원 추가 현금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은 36개월 무이자 할부 또한 선택 가능하다.

볼트 EV는 3.5% 콤보 할부 선택 시 현금 지원을 150만원까지 대폭 강화했으며, 지난달 선보인 50개월 ‘ECO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이달에도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달 프로모션 최대 혜택을 적용하면 스파크 170만원, 말리부 420만원, 트랙스 288만원, 이쿼녹스 423만원, 임팔라 395만원, 볼트 EV 250만원이다.

/정연우 기자

NO 재팬 확산에… 일본行 하늘길 줄어든다

불매운동 후 日 여행객 수요 ‘급감’
대형사·LCC, 노선 줄이거나 중단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전개되면서 일본행 여행객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다. 이에 각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축소하거나 소형 항공기로 교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여름휴가가 시작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일본으로 향한 승객은 총 46만 7249명으로 한 달 전보다 13.4% 감소했다. 일본 불매운동 직전인 지난 6월 15~30일과 7월 15~30일을 비교하면 7.1% 줄었다.

대한항공은 화·목·토요일 주 3회 운항하던 부산-삿포로 노선을 오는 9월 3일부터 잠정 중단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부산-삿포로 노선이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되자 지난 5월부터 노선 축소를 검토하다가 최근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예약률이 감소하면서 결국 노선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9월 부산-삿포로 노선을 예약한 기존 승객에게 인천-삿포로 노선 항공권을 제공하고, 인천-부산 내항기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일본 노선에 대해서도 투입 항공기를 좌석이 적은 소형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9월 중순부터 인천에서 출발하는 ▲후쿠오카 ▲오사카 ▲오키나와 노선 항공기를 소형 항공기로 변경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불매운동으로 인한 일본 여행객 수요 감소로 내린 조치다. 현재는 29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기인 A330이지만, A321(174명) 또는 B767(250명)으로 바꾼다. 시점은 추석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 항공기가 작은 기종으로 바뀌면서 일본 3개 노선에서 매주 2000개 가까이 탑승석이 줄어들게 됐다.

저비용항공사(LCC)도 일본 노선 축소를 결정하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LCC별 일본 노선 매출 비율은 에어서울이 50%로 가장 많으며 ▲티웨이항공 28% ▲에어부산 28% ▲제주항공 25% ▲이스타항공 25% ▲진에어 24%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4일 무안-오이타 노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9월부터 대구-구마모토 노선과 부산-사가 정기편을 운항하지 않는다. 이스타항공은 부산에서 출발하는 삿포로 노선과 오사카 노선을 9월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에어부산 역시 9월부터 대구-나리타 노선 운항을 멈추고, 대구-오이타 노선과 대구-기타규슈 노선의 운항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은 일본 노선 축소를 검토 중이다. 일본 노선 매출 비율이 높은 에어서울은 타 노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

LGU+ 5G 데이터처리 2배 가능한 장비 채택

국내 최초 대용량 5G DU 적용

LG유플러스는 5세대(5G) 이동통신 커버리지를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지국 장비의 경량화와 집적화를 추진, 기존 대비 2배 이상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대용량 5G DU(디지털 유닛)를 개발, 상용망 적용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5G DU는 스마트폰과 무선 신호를 주고받는 AAU(액티브 안테나 유닛)를 통해 들어온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 코어 장비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용량 5G DU는 기존 대비 AAU 수용 용량을 2배로 늘려 지금까지 DU에 연결 가능한 AAU가 18개에서 36개를 연결할 수 있게 됐다. 36개 AAU를 연결할 수 있는 대용량 5G DU 상용망 적용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또 AAU 수용 용량 증가에 따른 가입자 트래픽 처리 용량도 20기가비피에스(Gbps)에서 50Gbps로 2.5배 늘렸다. 이용자는 대용량 5G DU가 구축된 곳에서 속도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장비와 동일한 크기로 개발해 국사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